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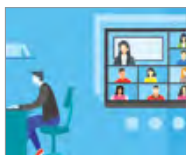
교육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교육목표 기독교적 지도자 / 창의적 전문인 / 자율적 봉사자

NO.385 2021. 08. 31 Tue

발행인 김상식 주간 임태균 간사 조선희 편집장 김가운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351, 8276 http://www.sungkyul.edu



2 보도
몽골 국제
올란바타르대학교와
MOU 체결



4 대학
2021 교육,
어디까지 아니?



7 사회
권리와 자유의
갈림길에서



13 교양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뜨겁게
불타올랐던 8월

개강사



총장 김상식

2학기 개강을 맞아 우리 성결대학교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폭염이 극심했던 여름방학의 끝자락에 어느덧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한때 코로나 19 종식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2학기에는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했으나, 최근 상황이 악화되어 2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학생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러나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개강과 더불어 성결 가족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결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성결대학교는 향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교육·연구·산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직접적인 재정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결 가족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인간의 관계성을 위협해 처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각성과 대인 관계가 억제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반향으로 인해, 개인주의가 만연했던 팬데믹 이전의 사회적 동향은 관계의 중요성과 결속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

개강사

는 사회적 관계성 즉 '우리'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결대학교'의 '우리 학생들'과의 만남이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일상에서 누려왔던 평범한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결 가족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래사회로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대학의 발전을 멈출 수는 없기에, 우리 대학에서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 운영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기초기능이라 할 수 있는 코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양필수 교과목을 추가했고,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 융합형 교과목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현장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을 진행 중이고, 데이터 기반 교육과정 성과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좀 더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사이버캠퍼스를 개설했고 2학기에 한층 더 원활한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학생들이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저와 교직원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집단지성을 만들며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혁신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두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총장으로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2학기에도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을 지속해서 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결대학교의 일원인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영과 육이 건강하고 주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로 가득 찬 학교의 모습이 재현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성결대학교 총장 김상식

미리보기

학교폭력, 더 이상의 외면은 그만 <6면에 계속>



손가락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 <8면에 계속>



디지털 미래가 궁금해요 <11면에 계속>



성결 HOT 게시판

#특별(비대면) 장학금 지급

지난 2021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우들의 학업여건 향상 및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자 특별(비대면) 장학금이 지급됐다. 특히 "그대의 마음에 한 걸음 더, In your minD 人:D" 총학생회는 특별 장학금을 원하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 본교에 장학금을 요청했으며, 이에 등록금성 지급이 이뤄졌다. 대상 기준은 ▲2021학년도 1학기 등록자 ▲2021학

년도 1학기 재학생(4월 1일 기준) ▲2021학년도 1학기 성적 산출자로, 이를 충족한 학우에게 10만 원이 지급됐다.

이번 특별(비대면) 장학금과 더불어 본교와 학생회 모두 재학생들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속해서 학우들의 여건 향상과 학업 수행에 대한 요청에 귀 기울여 진취적으로 성결인 양성에 힘쓰길 기대한다.

#2021-2학기 수업 운영 계획

대면/비대면 확정을 두고 혼란스러울 학우들을 위해 본교 2학기 수업 운영 계획을 안내한다.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의 수업 유형 및 개설 학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먼저 1,2학년 전공과목은 실습과 이론 수업 모두 수강생 70%이상 동의 시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커리큘럼에 따라 비대면과 혼용 가능하다. 또 3,4학년 전공과목 중 실습은 수강생 70%이



상 동의 시 대면수업을, 이론 또는 이론·실습의 경우 대면/비대면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모든 교양 과목은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본교,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와 MOU 체결

지난 7월 26일(월) 재립관 8층 총장실에서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최기호 총장 및 양교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 및 학술교류 등 상호 협력과 교류증진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 연구 및 인력 상호 교환 ▲인턴쉽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유 ▲문화 교류 ▲공동 세미나 및 회의 개최 등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상호 교류 분야를 확대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MOU 체결로 인한 본교 학술 증진의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는 몽골 최초의 외국인 대학교로 1993년 수도 울란바타르에 설립돼 명문대로 성장했다. 5개 단과대에 25개 전공을 운영 중이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참조 - 본교 홈페이지



체육교육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1 학생선수 두드림 프로그램' 선정

본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주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1 학생선수 두드림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2021 학생선수 두드림 프로그램 중 본과에서 지원한 '두드림-배움 프로그램'은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전문 튜터와 일반 학생 튜터가 학생선수 학사관리 지원을 통해 ▲학업능력 향상 ▲학교생활 적응 도움 ▲학생선수와 일반 학생 간 교류 등 개방적인 대학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해당 프로그램 선정 학교에는 군산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결대학교, 중앙대학교 총 4개교가 선정됐고, 2학기 2천 5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더불어 체육교육과 운동부는 "공부하는 운동부"를 슬로건으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시반 프로그램 ▲임용고시 세미나 ▲튜터링 등 학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생선수 출신 중 등임용고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학우들의 학업 성장이 촉망된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참조] 본교 홈페이지

성결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조교수 작곡가 이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 올해의 신작 오페라 부문에 최종 선정&예술의 가치를 넘어 환경가치와 만나다

본교 공연예술학부 이지은 교수가 작곡한 오페라 '시간 거미줄'이 대한민국 최고 권위와 영예를 자랑하는 공연예술창작산실에서 2021년 '올해의 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2년간 진행된 심의를 거쳐 오페라 전막 공연 및 국가 지원작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지은 공연예술학부 교수

오페라 '시간 거미줄'은 1866년 인천 강화도를 침범한 제국주의 프랑스 해군과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 '외규장각 의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 의궤를 되찾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한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와 2011년 한국으로 반환되기까지의 역사를 표현했다. 인천 강화도와 프랑스 파리를 과거와 현재의 배경으로, 2중 시간대를 아우르는 오페라 음악의 빠른 전개와 시종일관 눈을



떨 수 없는 스토리 진행이 기대를 모은다. 병인양요 사건을 토대로 역사의 흐름 속에

도도히 간직되는 조선 여자의 사랑과 복수가 GRAND OPERA의 규모와 웅장함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오페라로 커 갈 예정이다.

한편, 프로덕션 첫 단계에서 '당신의 페트병! 오페라 무대의상이 되다'라는 프로젝트로 (주)엘스텍바이런먼트와 함께 텀블벅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페트병을 원료로 한 원사로 무대의상을 제작한 오페라 '시간 거미줄'은 예술적 및 미래 환경적 가치가 결합된 프로젝트 기간을 거쳐 2022년 3월 세계 초연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텀블벅 홈페이지(<https://tumblrbug.com>)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참조] 본교 홈페이지

성 결 만 평

그림 - 김민진 기자 zzzzzzzzzin@sungkyul.ac.kr



본교 김상식 총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지난 7월 9일(금) 김상식 총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작년 12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진행방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 중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선포한 캠페인 슬로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공유하고, 다음 챌린지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교 김상식 총장은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동참했으며,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이후정 총장을 지명했다. 또한 릴레이 챌린지 동참 후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성결대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참조 - 본교 홈페이지



서종로 원로장로, 전은경 권사 부부 본교에 발전기금 기탁

서종로 원로장로, 전은경 권사 부부(신림제일교회)는 지난 4월 16일(금)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해 본교 발전에 큰 힘이 됐다.

김상식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한 서종로 원로장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의 선도대학인 본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학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김상식 총장은 “서종로 원로장로, 전은경 권사 부부의 본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섬기고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서종로 원로장로는 2001년부터 본교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 동역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학문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학술정보관 건립을 위해 발전기금을 후원한 바 있다. 후원문의는 지역사회협력단(031-467-8436)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그 외, 2021년도 상반기 발전기금 기부 소식

① 김응조 목사 유족: 유족보훈연금(월 583,000원) 전액 장학기부금 약정

② 강철호(영암 김응조 목사 손자): 지난 4월 20일(화) 영암장학기금 1천만 원 기탁

③ 사단법인 좋은이웃(대표이사 김윤석 목사): 지난 8월 23일(월) 본교 장학기금 1천만 원 기탁

※ 발전기금 및 CMS를 통해 기부해 주신 성결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참조 - 본교 홈페이지

본교 연극영화학부 영화영상전공 출신 동문, 2021 제주흔디독립영화제 공식 상영작 경쟁부문 선정 쾌거

제주독립영화제에서 주최한 로컬 영화제 제주흔디독립영화제에 본교 연극영화학부 영화영상전공 동문의 작품이 선정됐다.

16학번 임의준 감독의 4학년 졸업 작품 <입관>, 17학번 차은빈 감독의 3학년 워크샵 작품 <수희> 두 작품이 2021 제주흔디영화제 경쟁부문 공식상영작에 선정되는 쾌거를 통해 본교 연극영화학부의 위상을 높였다.

더불어 제4회 제주흔디독립영화제에는 총 778편(▲극영화 596편 ▲다큐멘터리 38편 ▲실험영화 25편 ▲애니메이션 119편)의 작품이 공모에 접수됐다. 예심위원들은 3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30편의 소중한 작품들이 혼디경쟁부문에, 4편이 너븐송이부문(비경쟁)에 선정돼 제주 관객을 만나게 됐다.

한편, 혼디독립영화제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제주에서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흔디’(함께) 모여 독창적인 제주문화를 즐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참조 - 본교 홈페이지, 제주흔디독립영화제

미래교육도시 SKU City

성결대학교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다고?

그럼 준비된 성결로와

든든하게 지원해줄 성결에서
너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야!

오늘 성결은,
청춘 in 성결대학교

성결인들 꽃길만 걷기

성결
에서

학생의 성장이야기가 빛나는 성결대학교

청춘기록

2022학년도 성결대학교 수시모집 일정

원서접수 2021. 9. 10.(금) ~ 9. 14.(화) 입학상담문의 031)467-8288, 8965

스마트한 교육인프라

- * 자기주도·협력적 학습역량 개발 지원
- * 맞춤형 학습영향 개발 지원
- * Learning Management System(LMS)



2021 교육, 어디까지 아니?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2년 가까이 흘렀다. 그동안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는 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은 많은 타격과 변동이 일어난 분야 중 하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교육, 본 기사를 통해 과연 2021년 교육은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자.

수면 위로 드러난 비대면 교육의 문제점...

Q. '코로나19' 여파,
온라인 강의 어떻습니까?

강의는 쉽고 과제만 늘었다?



[온라인 강의가 불편한 이유는?]

- 1위. 수업 대체 과제가 많아졌음 (24.2%)
- 2위. 수업방식 및 플랫폼이 다양해 혼란가중 (20.2%)
- 3위. 출결관리가 어려움 (15.7%)
- 4위. 서버 다운 등 접속 불안정 (14.2%)
- 5위. 교수님 목소리 전달이 잘 안됨 (12.7%)
- 6위. 저화질이라 강의내용, 판서가 안보임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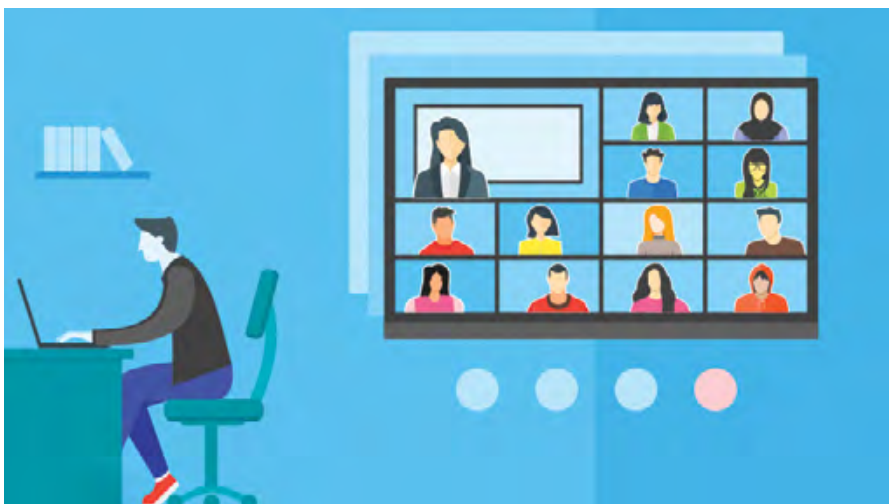
지난해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라는 새로운 교육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많은 학교에서는 ZOOM이나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에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 방역에 힘쓰며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비대면 원격수업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대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9%의 학생이 원격수업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늘어난 수업 대체 과제물 ▲수업방식의 혼란 ▲저화질로 수업 내용 전달에 대한 불편함 등이 그 이유다. 교육부에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2020년 교육은 비대면의 시작이자 과도기였다. 그렇다면 2021년 교육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모르면 손해! 새롭게 달라진 2021년 교육 정책

교육부는 '일상의 회복'을 올해의 교육 목표로 정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전의 일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같이 강의를 듣고 학식을 먹는 것도 이제는 먼 이야기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일상 방역을 기반으로 점차 비대면 수업을 줄이고 대면 수업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1. 원격수업 관련 규제&온라인 석사 과정 운영

2020년, 처음으로 비대면 교육이 시작되면서 많은 대학이 원격수업을 통해 강의를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으로 과제 제출 및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사이버 캠퍼스를 열어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원격수업은 규제가 많아 불편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4년제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 가능 학점 수를 대학마다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됐으며, 온라인 석사 과정 운영도 가능해졌다. 또 국내·외 대학 공동 교육 과정 운영 시 온라인을 통한 학·석사 학위 수여도 가능하다. 더불어 원격수업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학별 자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이 대학들의 원격수업 평가 및 '원격수업 평가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처럼 교육부에서는 2020년과 같은 비대면이지만 올해는 학생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2.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워진 가계를 고려해 학자금 대출 제도의 부담을 낮추는 정책 또한 생겼다.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거나 수익이 줄어든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계에 곤란함을 겪게 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다. 작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금 환불·반환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대학들에 1,000억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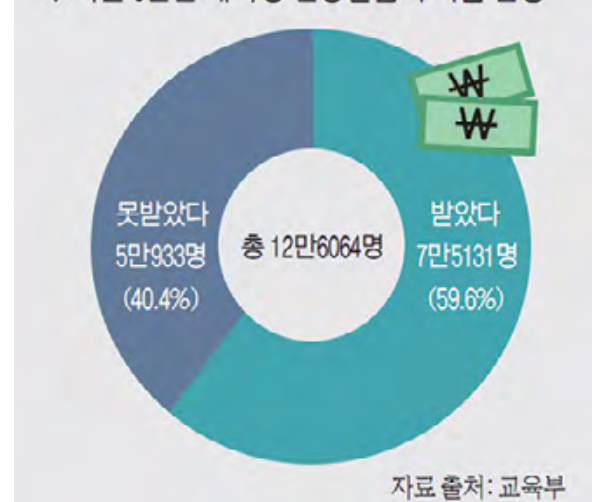
또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도를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원 구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지난해 5,4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 방식이 현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6,90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기본재산 공제액수가 커진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더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 작년 1.85%였던 대출금리를 올해에는 1.7%로 0.15% 인하했다. 이에 128만여 명이 연간 약 85억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한 상환기준 소득을 2,174만 원에서 2,280만 원으로 인상했다. 상환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학자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은 졸업자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금이나마 미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각종 장학사업이 확대되며, 교외 근로 규모와 지원금도 늘어났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3.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강화

많은 대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실습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됐다. 교육부가 최근 3년간 대학생 현장실습비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6,064명의 학생 중 40.4%가 현장실습 후 실습비를 받지 못했다. 그동안 대학생들이 실습을 나갈 경우 실습 지원비를 대학과 실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했다. 그렇기에 실습비를 지급받지 못해도 따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고, 대학생들의 '열정페이' 논란은 점점 심각해졌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 지원비 지급 기준을 세웠다. 실습생은 최저임금의 최소 75%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가 이어지면 학교 측에서 해당 기관에 실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실습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의 경우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무실습 운영기준 및 절차를 제공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정당한 실습을 할 수 있게 됐다.

◇ 최근 3년간 대학생 현장실습비 지급 현황



#우리에게 남은 또 다른 과제

2021년은 전년 대비 합리적인 비대면 교육을 구축한 한 해가 됐다.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토로했던 원격수업의 문제를 시작으로 학자금 대출과 현장실습 지원비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같은 비대면 교육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더 좋은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수업이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교육부의 목표인 '일상의 회복'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백신 접종에 따른 결석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 '백신 공결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백신 공결제'를 통해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대면 수업의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백신 접종과 생활 방역을 통한 일상의 회복이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비대면 교육이 점점 끝을 보이고 있다. 복직하는 강의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니는 캠퍼스가 곧 우리 곁으로 다시 찾아오길 기대해본다.

창업의 세계와 트렌드

Z세대로 들어서며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은 시대에 맞서 성공 창업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지금, 창업의 세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언택트'는 우리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겐 이것이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언택트 비즈니스'와 관계시켜 소개하고자 한다.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쇼핑 사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의 소비자 또한 온라인을 접하며 e커머스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영상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오프라인에서의 제품 경험 가치를 온라인에서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등장했다. 이는 생방송 및 구매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통한 간접 경험을 이용해 고객과 제품 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로 소비자로부터 보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네이버TV ▲V 라이브 등 다양한 영상 매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새로운 언택트 비즈니스 요소로 떠오른다. 라이브 커머스는 식품과 의류, 가전 등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캐릭터 스티커, 텀블러 등의 굿즈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일반인이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다. 대표적으로 일반인이 런칭한 인스타그램 캐릭터 '최고심'은 약 1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티셔츠, 핸드폰케이스를 판매하기도 한다. 보다 낮은 진입 장벽을 자랑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창업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개인 맞춤형 서비스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해 나만을 위한 맞춤 상품과 제품을 추천해 주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실제로 해외에는 혈액 채취를 통한 진단 키트 제공 서비스 및 고객 설문을 통한 영양제 배송 서비스가 존재하며, '돈28'과 같은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행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서비스, 즉 '나'의 취향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청자가 선호하는 장르 및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또한 '큐레이션 서비스'의 예시로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또한 본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취향과 적합한 음악, 의류 등을 발견할 수 있

며 동시에 넘쳐나는 정보가 정리할 수 있는 정보 홍수 시대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개성주의 Z세대를 겨냥한 본 서비스는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창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관리 서비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소독·방역 시스템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무기력증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 및 자기 관리다. 실제로 일러스트, 펜드로잉 분야의 1인 클래스는 연령불문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각광받는 1인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국내 명상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마보'의 이용자 수는 약 12만 명에 이르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월 5,000원 이내의 유료 서비스임에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 '자신을 돌볼 시간'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코로나 이후 더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 관리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운 존재로 다가온다.

또한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으로 실내 운동이 선호되며 홈트니스(Home+Fitness)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홈 트레이닝은 더욱 각광받고 있으며, 원하는 시간대에 부담 없이 운동이 가능하다. SSG닷컴에 따르면 2020년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텝퍼 ▲아령 ▲워킹 머신 등 실내 운동 관련 제품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고객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코치와 함께하는 일대일 트레이닝 방문 코치 서비스와 모바일 비대면 건강 관리 앱 이용률 또한 증가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 홈 트레이닝 클래스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측 가능하며 ▲공예 ▲베이킹 ▲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클래스를 창업 트렌드로 선정할 수 있다.

초보 창업인 주목! 창업 지원 사업을 알아보자

창업한 이후 받아볼 수 있는 지원 사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빛을 바라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다. 이는 만 3년 미만의 개인·법인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매년 3월 케이스타트업(K-Statu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 필요 금액 70% 이하에 한해서 최대 1억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창업 기업의 대응 자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비 ▲지재권 취득 ▲마케팅 비용 ▲지급수수료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시 회식과 같은 개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 후 증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평가 및 선정은 서류 및 발표평가 과정을 통해 ▲문제 인식 ▲실행 가능성 ▲성장전략 ▲기업 구성을 세부 평가 후 선정한다. 이 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 정보는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유의사항을 참조하길 바란다.

창업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코로나19'라는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위기의 편에 설 것인지, 기존의 틀을 깨고 기회의 편에 설 것인지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준비하는, 비즈니스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창업 꿈나무들에게 전한다. "불확실성이라는 파도를 타고 나아가 위기를 극복으로 돌파할 새로운 언택트 솔루션 전략"은 성공적인 발돋움의 될 것이다. 창업에 관심이 생긴 학우가 있다면 워크넷 - 직업심리검사 - 창업 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통계청, 머니투데이, 최고심 인스타그램

[참조] 워크넷, 케이스타트업

다 같이 자취하자!

취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스펙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격증! 개강과 함께 자격증 취득 꿀팁을 알차게 담은 특집 기사가 새롭게 돌아왔다. 이번 호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1급'의 기본 정보부터 합격자의 생생한 무료 공부법까지 함께 알아보자!

자격증 정보

필기	1과목 : 컴퓨터 일반
	2과목 : 스프레드시트 일반
	3과목 : 데이터베이스 일반
실기	1과목 : 엑셀
	2과목 : 액세스

산업 정보화에 따라 시대는 점점 경영분석, 데이터 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 우리는 사무자동화의 필수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컴퓨터 활용능력 1급'을 응시할 수 있다. 취득을 위해선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총 2번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기는 객관식 60문항, 제한 시간 6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응시 수수료는 19,000원이다. 또 실기는 90분 동안 컴퓨터 작업형으로 이뤄지며 22,500원의 응시 수수료가 요구된다. 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및 코참패스 앱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코참패스 앱 접수 시, 모바일 수험표가 자동으로 발급된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합격자의 필기·실기 무료 공부법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형식으로 매년 기출문제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된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며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합격자의 경험에 따르면 첫째, 기출 풀이 전 '이기적 영진 닷컴' 유튜브 강의를 통해 기본 개념 및 문제 풀이를 간단히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시험 출제 형식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CBT 전자 문제집(www.comcbt.com)의 5-6개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약 3회 반복한다. 이렇게 약 2주 동안 노력한다면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와 함께 실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실기 시험은 프로그램의 활용 반복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시민 사이버 교육

센터(약 20시간)에서 무료로 강의를 이용한다. 다른 지역 시민도 이용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을 손에 익히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둘째, 강의 수강 후 기출문제집을 약 3회독하며 1·2회독의 경우 답안지를 활용해 문제 풀이를 한다. 본 과정에서 '시나공'의 기출문제집을 추천한다. 셋째,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실기의 경우 대부분이 프로그램 활용에 익숙치 않기에 필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컴퓨터활용능력 1급은 2급과 달리 약 3배 정도의 높은 난이도를 지니고 있으며 취득 목적에 따라 급수 또한 달라진다. 컴퓨터 활용능력 1급의 경우, ▲공기업 취업 ▲지방직 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인사고과 점수 획득 ▲취업 시 가산자격 및 우대 자격 포함 등에 해당한다면 취득을 추천한다. 더불어 ▲엑셀 실무 활용 사무직 ▲이력서 기재 목적 ▲시간 불충분 등에 해당 시 컴퓨터 활용능력 2급에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의 취득 취지와 목적을 인지한 후, 자신과 알맞은 공부법을 찾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길 바란다.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인천시민 사이버 교육센터

학교폭력, 더 이상의 외면은 그만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학교폭력은 오래전부터 많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안겨왔다. 심지어 사회는 학교폭력을 장난으로 묵인하며 보호받아 마땅할 학생들을 버랑 끝으로 내모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장난은 피해자가 없어야만 그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이다. 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단순히 장난이라 여겨도 될까? 또,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피해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형국에 사회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의 사례들

지난 6월 강원도 소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학년 A군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나랑 눈도 안 마주치려 하고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는데 내가 괜찮은 척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마도 나 안 괜찮아. 도와줘” 등 학교폭력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쪽지를 남긴 채 학교 옥상에서 투신했다. 그러나 A군이 학교폭력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사망 후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야 밝혀졌다. 이를 발견한 유족은 A군이 재학 중일 때 학교폭력을 당한 정황이 보인다며 학교 측에 조사를 부탁했다. 하지만 학교는 학교폭력에 관해 은폐하기 바빴으며 A군의 자살을 단순한 학업 스트레스로 몰아갔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도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경찰은 학교폭력과 자살의 상관관계를 조사할 때 위클래스 상담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의 원인을 단순 학업 스트레스로 결론지으며 무성의한 수사를 보였다.

같은 해 7월, SNS에 B군이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이 공유돼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 남학생 1명이 B군의 목을 졸랐고 옆에 있던 여학생 1명은 담배를 피우며 B군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며 경찰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의 여부를 확인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기절 놀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진술해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았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 측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다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최근 들어서는 ‘기절 놀이’가 다시 유행하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기절 놀이란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세게 눌러 뇌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 일시적으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행위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주 대상이 됐다. 이 밖에도 칼로 배, 팔, 다리 등을 긁는 ‘수술 놀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요구하며 갚지 않는다고 폭행 및 협박하는 ‘사채놀이’ 등 놀이를 빙자한 학교폭력의 행위가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지고 있다.

무의미한 예방 교육

<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 >									
구분	2013년 1차	2014년 1차	2015년 1차	2016년 1차	2017년 1차	2018년 1차	2019년 1차	2020년	증감 (전)
언어폭력	13.6	9.4	6.8	6.2	6.3	8.7	8.1	4.9	△3.2
집단따돌림	6.6	4.6	3.6	3.3	3.1	4.3	5.3	3.8	△1.5
스토킹	3.7	3.0	2.6	2.0	2.3	3.0	2.0	1.0	△1.0
신체폭력	4.7	3.1	2.4	2.2	2.2	2.5	2.0	1.2	△0.8
사이버폭력	3.6	2.5	1.9	1.7	1.8	2.7	2.0	1.8	△0.2
금품갈취	4.0	2.2	1.5	1.2	1.2	1.6	1.4	0.8	△0.6
성폭력	1.3	1.0	0.9	0.8	0.9	1.3	0.9	0.5	△0.4
강요	2.4	1.3	0.9	0.8	0.7	1.0	1.1	0.6	△0.5

2021년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295만 명 중 9,300명은 가해 경험이 있으며 2만 6,900명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여전히 학교폭력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조사에 사실대로 응답하지 못한 피해자도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듯 학교폭력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아직도 혼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법으로 지정돼 있어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초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례를 보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학교는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일 당시 이미 6차례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다면 이는 기존의 예방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 이제 멈춰!

학교폭력이 지속되는 이유에는 예방 교육의 미흡함도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 62%가 서면 사과와 교내봉사로 처리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는 13%, 전학 및 퇴학은 2.5%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만을 받고 다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은 보복성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만 한다.



남겨진 사회의 숙제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청소년기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싸움을 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라며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싸움을 하는 등의 공격성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임 교수의 말처럼 청소년기에는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격성이 동급생을 향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의 시작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에게 폭력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는 진실을 외면하며 동시에 방관과 폭력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더불어 관련 법안까지 보여주기가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이유로 학교폭력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복 및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무법인 사월 노윤호 변호사가 “사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 안에 8시간 있는 경우가 없듯이 분리과 사후 조치가 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재발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 측은 피해 의심 학생과 가해 의심 학생을 즉각적으로 분리한 후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만 한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과 처벌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예방 교육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학교폭력 역시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가 학교폭력을 미성숙했던 시절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미성년자라고 그들의 죄를 가볍게 처벌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 또한, 피해자에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그들이 내민 도움의 손길이 외면당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하길 바란다.

글 - 박미경 수습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교육부, 조선예류

[참조] 교육부, 데일리안, 인천일보

기자담판

- 권리와 자유의 갈림길에서 -

언론 보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잘못된 기사의 수정 또는 보완을 청구하는 권리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에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법이 배포 후 수정이 어려운 일방향 매체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 환경의 변화로 쌍방향 소통 및 수정이 가능해지며 언론중재법은 개정의 필요성을 국면 하게 됐다.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언론중재법 개정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언론인권센터의 경우 지난 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보도 피해가 2·3차로 확대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서 추후 보도권 확대 등 피해 구제를 위해 진일보한 법률안”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라며 수정·보완을 요구한 바가 있다. 이를 인용해 말하자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볼 수 있어 필요한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되는 조항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완한 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징벌적 손배제를 발전시킨 미국조차 언론에 적용하는데 매우 신중하다”라고 말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별 법안으로 입법한 사례를 타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명백한 오류 근거가 된다.



그 외에도 구상권 청구 요건은 손해배상 책임을 의도적으로 기자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또한 판단이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문제와 사후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보도에도 이를 반영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요구된다. 언론의 순기능인 속보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계의 위축으로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 또한 큰 문제가 된다.

본 기자는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에 특히 통탄함을 느낀다. 모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법안은 없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의견의 ‘수렴’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안은 취약점이 드러나 결국은 완성되지 못한 법안으로 남게 된다. 결론적으로 필요한 법안이 되기까지 불만을 감수하게 되는 대상은 국민이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해 만든 법안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과연 옳은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 자유 침해’의 사이에서 ‘중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그 이름이 과연 법의 내용과 일치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언급됐듯, 명확하고 타당한 기준이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필요하다.

2010년대 이후 인터넷과 SNS가 발달함에 따라 가짜뉴스 보도의 빈도가 높아졌다. 사람들의 관심과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요소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짜뉴스는 상업적 혹은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만들어진다. 실제로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게시물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이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필터버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화된 알고리즘은 사람들에게 편향된 입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사실 여부가 아닌 당사자의 성향 및 호불호에 따라 걸러진 정보를 획득하게 만든다. 실제로 네이버가 운영한 AI 뉴스 추천 시스템 ‘에어스’에서 불확실하고 단편적인 기사나 특정 인물의 SNS 내용을 똑같이 쓴 기사에 ‘단독’이라는 단어를 쓰면 메인 지면으로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기자가 보도 자료를 빠르게 작성해서 보도 건수를 늘리면 기사가 사실 여부 및 보도 내용과는 상관없이 포털 메인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과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버린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 신뢰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보장될 수 있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보는 사람들에게 혼란 대신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언론 신뢰도와 확실한 근거를 가진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준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도 명시돼있듯 언론의 자유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지킨다는 전제 속에서 존재한다. 가짜 뉴스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언론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 옳을 수 있다. 실제로 언론중재법 개정 인식 조사 결과, 이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지만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21% 더 많았다.

본 기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봤다. 언론중재법 개정의 취지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피해자 발생과 잘못된 정보 전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관심을 이용하는 현 상황을 전복시킬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도 없이 변화되는 것은 없듯,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가짜뉴스 줄이기에 노력하는 것이 정보사회 구성원의 숙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글 - 노하은 기자 dmslu7226@sungkyul.ac.kr

정우민 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리얼미터, 뉴시스 / [참조] YTN, 미디어오늘, 국민일보

이크, 에코!

환경을 위한 작은 용기

루게릭 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시작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필두로 다양한 캠페인이 등장한 가운데 환경을 위한 작은 용기가 시작됐다. 이번 호에서는 ‘용기내 챌린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용기내 챌린지는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다. 이는 2020년 4월 그린피스¹⁾와 배우 류준열이 함께 진행했으며, ‘용기(勇氣)를 내서 용기(容器) 내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 오자’는 의미를 내포한다. 실천 방법은 간단하다.



구매한 음식과 식재료를 다화용기나 장바구니에 담은 모습을 SNS에 게시하고 #용기내챌린지나 #용기내캠페인 등의 해시태그를 붙이면 된다. 이러한 챌린지가 유행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버려진 플라스틱 물량은 하루 평균 848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가량 증가했다. 비닐 폐기물의 경우 하루 평균 951t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한 셈이다. 쓰레기의 급증은 눈에 띄는 정도였으며 체감되는 기후 변화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도록 이끌었다.

그렇다면 용기를 낸 사람들은 누굴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그린피스 홍보대사인 배우 류준열은 용기내 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마트에서 자신이 가져온 용기에 생선을 담은 모습을 SNS에 게시해 이목을 끌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류준열은 챌린지에서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 과대 포장에 대해 지적하며 홍보대사로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순히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챌린지의 취지와 유사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존재한다. 2017년에 오픈한 카페, ‘Earth, Us’는 챌린지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다. 이곳은 손님이 직접 용기를 가져와야만 포장 가능하다. 해당 조건으로 인해 손님을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다화용기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섰다.

유명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즐기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내 챌린지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낭비를 막아주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지 환기시켜준다. 그러나 이러한 캠페인은 그 누구보다도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라벨 프리를 선도한 생수업체와 같은 이치다. 다만 쓰레기 배출의 큰 원인인 배달 서비스는 챌린지를 시도해 보기 어렵다. 가게에서 다화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수거해야 하며, 그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용기내 챌린지가 단순 유행으로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 다화용기에 포장해가는 행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용기가 우리 생활에 스며드는 날을 기다려본다.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사진 - 쇠부리토코

[참조] 그린피스 공식 홈페이지, 소비자평가, 스포츠뉴스

1) 그린피스 : 1971년 태어난 독립적인 국제환경단체인 지구 환경보호와 평화를 위해 비폭력 직접행동의 평화적인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손가락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

위대한 혁신가 하면 쉽게 떠오르는 스티브 잡스. 그의 아이폰이 ‘혁신’이라 불리는 이유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변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혁신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내 손가락 위에도 발전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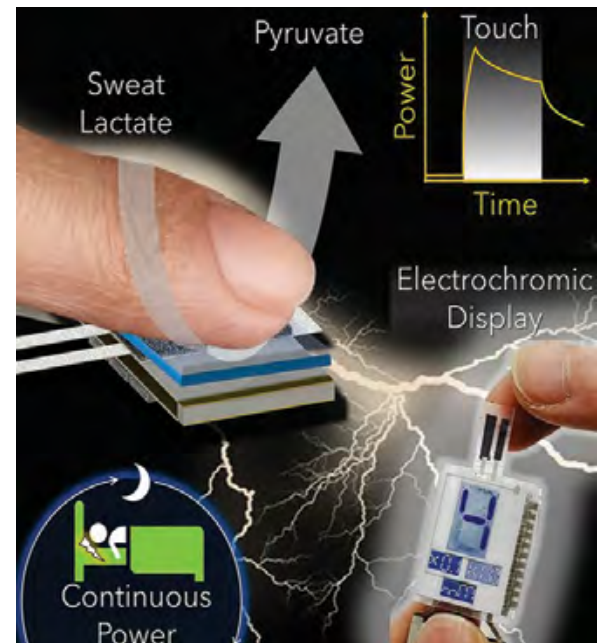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연구팀은 손가락 땀으로 전력을 생성하는 기상천외한 충전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유연하고 얇은 반창고처럼 생긴 끈으로 손가락 끝을 감싸고 있으면 땀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소량의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땀에는 무산소 호흡의 부산물인 젖산이 들어있다. 효소가 이 젖산을 피루브산으로 분해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연구진은 이러한 땀의 특성과 땀샘이 가장 집중된 곳인 손가락

락에 주목했다.

두 특성을 이용해 만들어진 발전 장치는 가장 먼저 하이드로겔로 땀을 흡수하는데, 이는 물을 함유해 말랑말랑한 물질로 전극 역할을 하는 세 층이 존재한다. 세 층 중 두 층은 젖산에서 전자를 뽑아내는 효소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층에는 앞서 뽑아낸 전자의 산소를 물로 바꾸는 백금 촉매가 들어있다. 그렇게 땀에서 나온 전자가 전극을 차례대로 이동하면서 전류를 발생시키고, 이는 밴드에 같이 있는 박막형 축전지에



저장했다가 센서를 작동할 때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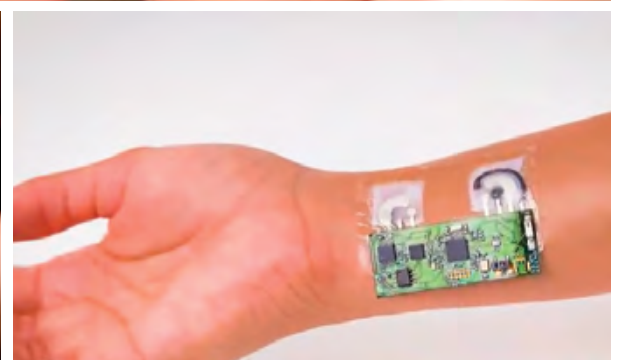
땀을 통해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는 이미 존재했다. 하지만 땀을 흘리기 위해 격렬한 운동이 필요했고, 많은 노력을 들여 소량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구조였다. 이 점을 봤을 때 연구팀은 그 한계를 극복해 손가락 땀만으로 발전 가능한 슬림형 기기를 개발함으로써 혁신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최근 몸에 착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센서들이 개발돼 운동선수의 가속도나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에 문제점은 바로 센서 작동에 필요한 전기 문제이다. 배터리는 몸에 착용하기 거추장스럽고 작동 시간도 짧을뿐더러 태양전지는 밤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땀의 재발견은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다. 연구진은 손가락에 밴드 형태의 발전 장치를 붙이고 10시간 동안 잠을 자면 400(MJ)의 전기가 발생해 하루 동안 전자 손목시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수면만으로도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발전장치에는 압력 변화로 전기를 만드는 압전 소자가 붙어있어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의 압력으로도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1시간 동안 PC를 이용해 타이핑을 하거나 컴퓨터 마우스를 누르는 동작으로 30(MJ)의 전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

더하여 ‘땀 센서’는 손가락을 찌르지 않고도 혈당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덕분에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 손가락에 혈당 측정기 바늘의 찌름을 참아내며 혈당을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 터치형 땀 센서를 통해 손가락 끝으로 땀 속의 포도당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면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해줬다. 채혈 과정 없이 혈당을 측정해 모니터링하고, 개인화된 알고리즘이 혈당 수치를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연구 내용도 보고됐다. 이 또한 전기 화학 센서 위에 폴리비닐알코올 하이드로겔이 있는 터치 기반 땀 포도당 센서가 유연한 플라스틱 스트랩에 인쇄돼 있다. 하이드로겔이 소량의 땀을 흡수하고 센서 내부에서 포도당이 효소 반응을 일으켜 작은 전류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글도 놀랐다! 손가락 드론 조종 기술 개발한 스타트업!



신생기업 디스이즈 엔지니어링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손가락 하나로 드론을 조종하는 비접촉 방식의 근거리 마이크로 감지(NFMC) 기술을 개발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비행 조정 기술을 갖고 있는 서너 개의 기업 중 하나로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들이 만들어 낸 기술은 다음과 같다. 엄지손가락에 반지처럼 생긴 감지기를 끼우고 손에 작은 림스틱 모양의 조종기를 쥐어 그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드론을 비행시킨다. 손가락을 앞으로 밀면 드론이 전진하고, 위로 띄우면 드론도 함께 떠오른다. 누구나 5분만 연습하면 드론

을 바로 날릴 수 있는 이 기술은 쉬운 조종에 반해 어려운 개발 단계를 거쳤다. 그리고 이는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에서 시프트(Shift)라는 드론으로 공개돼 ▲구글 ▲삼성 ▲LG ▲인텔 ▲아마존 ▲DJI 등 유명 기업들을 놀라게 했다.



버스 카드도 손가락에!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초소형 티머니를 직접 만들어보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세톤에 교통카드를 넣으면 카드가 쪼그라들면서 칩과 코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칩과 코일을 ▲네일 ▲반지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에 넣어 더 작고 간편하게 만들었다. 특히 모바일 티머니와



티머니 페이의 교통카드 기능 지원 불가인 아이폰 이용자와 여전히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누리꾼들에게 흥미를 유발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7월 미국 CNN에 따르면 두바이 한 뷰티 살롱 설립자는 근거리 무선통신인 NFC 칩을 삽입한 네일아트인 ‘스마트 네일’을 선보였다. 앞서 2016년에는 영국의 한 보석 디자이너가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인 전자태그 칩을 인조 손톱에 내장하는 방식으로 개발했다.



Think different.

스티브 잡스가 말한 애플의 핵심 가치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이다. 그의 기술과 창조적인 생각 덕분에 소비자들이 쉽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콘과 윈도우 기능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혁신의 저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제품일지라도 대부분의 혁신 제품은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스티브 잡스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여 이 세상을 진보 시킨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것이 곧 애플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세상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미친 사람’ 혹은 ‘부적응자’라고 부르며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절하해 버리곤 한다. 규격화된 삶은 리스크 없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지만 스티브 잡스가 경고하는 도그마(Dogma)에 빠진 삶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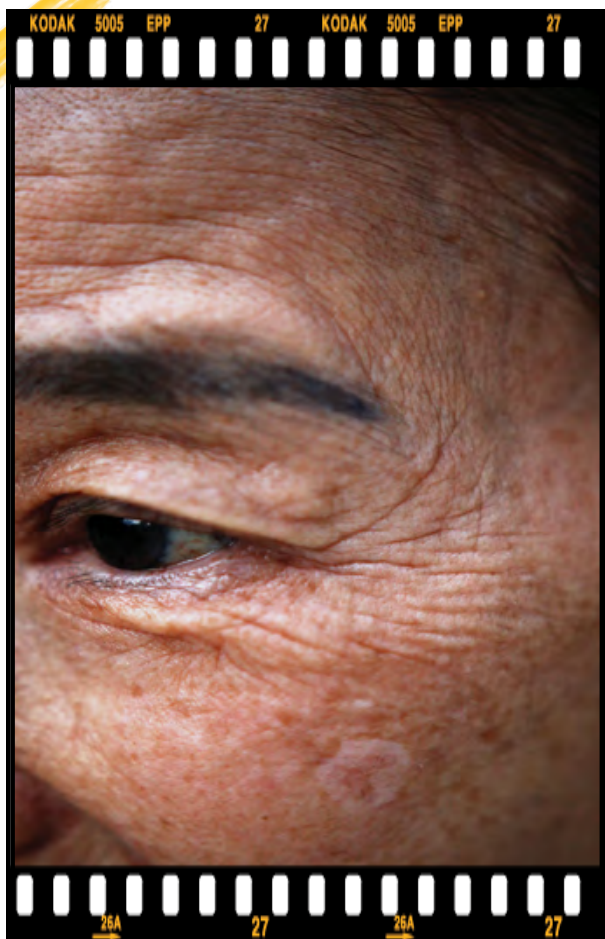
“Think different”는 도그마의 뒤통에 걸리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가 되기는 쉽지 않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래로 현대 문명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기계는 모두 다 창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가’는 무에서 유가 아닌 기존에 있는 것을 끼워 맞추고 변형한다. 사고의 전환과 실천력만 있으면 누구나 혁신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글 - 김주희 수습기자 wngml5216@sungkyul.ac.kr
사진 - 조선일보, 9to5mac, UC샌디에이고,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쏜만한마을, digitaltrends, 네이버
[참조] 조선일보, 한국일보, 스피처, 케미컬뉴스



사진기획



당신의 나이테에게

유일하게 죽음을 인식하는 인류는 노화를 '죽음의 과정'으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 왔다. 노화에는 호르몬의 변화 같은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식생활과 생활환경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질병 등 우리 삶의 몫이 크다. '피부가 곧 인간의 나이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나무의 나이테와 다르게 인간의 노화는 하대를 받는다. 수많은 시술과 화장, 제품과 식단법, '젊음'을 숭상하는 사회상을 보면 괴이한 마음이 들곤 한다.

우리가 노화를 피할 길은 없다. 필자는 아버지의 투박한 굴곡과 어머니의 눈가에 있는 친근한 포물선을 보면서 당신이 겪어 오신 풍파를 새삼 실감 한다. 이런 생각에 미치자 내 뺨에 흠뻑려진 주근깨조차 특별하게 느껴졌다. 나의 피부 위에 얹은 흔적들이 결국 나의 삶에서 기인 됐다면, 우리가 걷고 있는 치열한 오늘도 부모님의 어제처럼 차곡차곡 쌓여 삶의 증거로 남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노화가 '삶이 스며드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노화를 부정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마스크 아래 숨겨진 당신의 나이테를 상상해 보며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흔적을 새겨줄, 당신의 치열한 오늘을 응원한다.

P.S. 당신은 영망이라니 수줍어하셨지만, 가까이 내어준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글 - 김민진 기자 zzzzzzzzzin@sungkyul.ac.kr

사진 - 이채영(연영 17) 학우/[참고] 경향신문, 오마이디자인



여기 뭐 할 거 있겠어? 문래역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는 서울 메트로, 역마다 어떤 놀 거리가 있는지 궁금해서 만든 대리만족 코너. 여기 뭐 할 거 있겠어? 이번 호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든 접근이 편함과 동시에 핫한 문래역에 가봤다.

인더스트리얼 문래



1960년대 영등포구 문래동에선 철공소 산업 활성화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산업 변화 등의 이유로 쇠퇴하며 빈 공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홍대 주변, 대학로 등 값비싼 지역으로부터 쫓겨 나온 예술가들이 보다 저렴한 문래동으로 모이면서, 빈 공장은 하나 둘 작업실로 탈바꿈했다. 기존에 있던 철공소 건물과 예술가를 기반으로 문래동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는 카페와 음식점 그리고 다양한 공방들이 자연스레 들어섰다. 이에 지금의 문래는 낮에는 철공소의 쇠를 다듬는 소리로, 저녁에는 인더스트리얼한 느낌을 가진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문래역에서 놀래

문래역 7번 출구로 나와 길을 따라 3분 정도 걸었을까, 문래창작촌임을 알리는 설치물이 보인다. '여기가 요새 핫하다는 곳이 맞나' 의심이 든다면 잘 도착한 거니 걱정하지 말자. 잠깐!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 휴무일은 꼭 파악하고, 도착한 후에는 문래역 탐방의 꽃인 골목골목을 느끼기 위해 지도를 끄고 발길 닿는 곳으로 가보기를 추천한다.



골목골목이 포토존

문래동 골목은 레트로한 감성과 벽에 수놓은 벽화들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포토 스팟이 생긴다. "여기 이미 왔던 곳이야"라 할 정도로 헤매야 제맛.



분위기 있는 식사

낮은 건물이 많은 문래동 특색상 루프탑을 갖춘 식당이 많다. 석양이 질 때 즈음 루프탑에 올라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먹는 식사는 일품! 추천 식당으로는 찰랑, 물래, 올드 문래가 있다.



숨겨진 골목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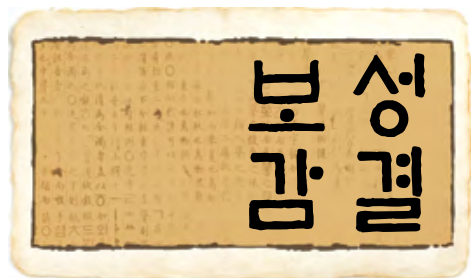
오래 걸어 갈증이 날 때 문래동 골목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는 건 어떨까? 추천 카페로는 러스트 베이커리와 평화가 있다.

★★★★★

문래에 위치한 식당, 카페, 공방 등은 골목 사이사이에 위치해 있고, 옆에 철공소, 철물점 등이 붙어 있어 낯설 수 있지만 은근한 조화가 매력적인 곳이니 방과 후에 친구 혹은 연인과 둘러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글/사진 - 오승민 기자 sm961215@sungkyul.ac.kr

[참조] 아트인사이트



성경인들의 건강을 위해 각종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 방법을 소개하는 新코너 성경보감! 이번 호에서는 여름철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 '다형 광 발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외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부가 빨갛고 가렵다면 본 기사에 주목 하길 바란다.

혈중 칼슘과 인의 수준을 조절하는 비타민 D를 공급받기 위해 햇볕을 쬐러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엔 강한 햇빛에 의해 피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외출 중 빨개졌던 피부가 귀가 후에도 여전히 빨갛게 부어올라 가려움과 따가움까지 동반한다면 '다형 광 발진'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다형 광 발진은 햇빛 알레르기의 일종으로,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된 후 햇빛 노출 부위에 ▲수포 ▲습진 ▲홍반 등 여러 형태의 붉은 발진이 나타나 가려움을 유발하는 피부 질환이다. 이는 주로 ▲이마 ▲코 ▲가슴 상부 ▲목의 뒷면과 옆면 ▲손 등 등에서 발진이 나타난다. 또 햇빛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기온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발생하며, 특히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발생 빈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주로 젊은 여성에게 이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 발현은 햇빛 노출 후 수 시간 혹은 수일 동안 지속돼 심할 경우 2주 동안 이어지며, 흉터는 남지 않지만 매년 재발하는 특징이 있다.

다형 광 발진은 보통 3~5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나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피부과에 방문해야 한다. 이는 일 반적인 알레르기 치료 방법과 동일하게 경구약이나 스테로이



이나 야외활동 시 피부가 태양 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UVA와 UVB를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사용하고 한두 시간 간격으로 이를 덧발라준다. ▲긴 팔 ▲긴 바지 ▲선글라스 ▲모자 등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거나 양산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뜨거운 여름철, 자신의 피부 상태를 파악하고 보호하며 각종 질환에 유의해 건강한 야외활동을 즐기길 바란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사진 - 한국일보

[참조] 매경이코노미, 하이닥



디지털 미래가 궁금해요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로봇 기술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 나타나는 혁신적인 변화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거친 후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다룬 OTT 플랫폼의 두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이어즈&이어즈
개요 ▲드라마·SF ▲저항·디스토피아
감독 사이먼 셀란 존스, 리사 멀케이
편성 영국 BBC one 2019.05.14. ~ 2019.06.18.
왓차 익스클루시브에서 독점 공개
등급 15세 이상

“아무래도 난 ‘트랜스 휴먼’인 것 같아”

전 세계에 들이닥친 핵무기의 위협과 전 시제, 그리고 거침없는 언변을 일삼아 인기를 끄는 정치인의 등장까지. 해가 갈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해간다. 이 가운데 바로 스티븐의 가족이 있다. 스티븐의 첫째 딸인 베서니는 항상 필터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이야기를 나누려면 휴대폰으로 예약을 받는다. 그런 딸이 걱정된 스티븐과 그의 아내 셀레스트는 베서니의 검색 기록을 훔쳐 본다. 기록에서 발견된 건 바로 ‘트랜스 라이프’. 스티븐과 셀레스트는 당연히 성전환이라 생각했지만 베서니는 성전환이 아닌 ‘디지털’이 되고 싶다고 한다. 육체는 없지만 영원히 사는, ‘정보’가 되는 삶을 원하는 것이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서니는 휴대폰을 손가락에 이식해 오직 손가락만으로도 전화를 받고 통화할 수 있게 되는 디지털 인간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

“감시받는 기분이야”

이후 베서니는 뇌에 축소형 칩을 심어 손가락과 생각만으로 데이터를 통제하게 된다. 실시간 추적을 할 뿐만 아니라 눈으로 사진을 찍어 손가락만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티븐은 그런 딸을 보고 감시받

는 기분이라며 한탄하지만 베서니의 능력은 ‘감시’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잠겨있는 문도 손가락만으로 쉽게 열고, 심지어 타인의 정보를 해킹할 수 있는 ‘불법행위’까지 가능해졌다. 그렇게 베서니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되는데... 베서니는 어떻게 될까? 과연 디지털의 한 파장이 될 수 있을까?

“온갖 기기를 쓰게 한 우리가 자초한 거야”

베서니를 보고 한탄하는 스티븐을 향해 셀레스트는 말한다. “온갖 기기를 쓰게 한 우리가 자초한 거야” 어릴 때부터 시작된 미디어 사용과 상용화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다는 의미의 이 대사는 현실을 지적한다. 오늘날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배운다. 즉, 아이들에게는 기기가 선생님이 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작 중 ‘시노르’와 같이 개인 일정을 관리하는 인공지능과 계산을 도와주거나 음식 만드는 기계들은 이제 일상이 됐다. 곧 우리도 “디지털이 되고 싶어”라는 베서니의 대사처럼 개인의 ‘특별함’은 컴퓨터 속 휴지통으로 들어간 디지털 인간의 열풍을 불어올 수 있다. <이어즈&이어즈>는 이를 경고해 디지털 인간은 결국 편안함보다는 감시의 도구가 되며, 디지털

범죄와 같은 사회적 혼란은 수도 없이 일어 나리라고 역설한다.

<이어즈&이어즈>는 디지털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시제체 ▲인공지능에게 뺏긴 일자리 ▲전염병 등 실제 일어날 법한 미래의 혼란들을 예견해 블랙 코미디로 승화시킨다. 특히 종종 등장하는 주옥같은 대사들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후속 세대와 행동력, 개인의 특별함을 일깨워 반성을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디지털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발전만을 갈망하고 이면을 외면하는 이들, 미래에 나타날 위기에 대해 예측해보고 고찰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이 작품을 추천한다. 더불어 시청 시 ‘편견’을 지적하는 요소를 보여주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에 ▲동성애 ▲유색인종 ▲성 등에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도 이 작품을 추천한다.



제목 블랙 미러
개요 ▲드라마·SF ▲스릴러
크리에이터 찰리 브루커
편성 시즌 3 ~ 5 넷플릭스
2016.10.21. ~ 2019.06.05.
등급 청소년 관람 불가

“애한테도 인격이 있어요. 제 인격을 본떠서 만들었죠”

세계적인 팝스타 애슐리 O는 자신의 뇌를 복사한 인공지능인 ‘애슐리 투’를 홍보한다. 애슐리 투는 힘들 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화장하고 춤추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인공지능으로 마치 세계적 스타와 친구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당연히 애슐리 투는 많은 팬들이 원했고, 그중에는 주인공 레이철도 있었다. 전학 온 후로 친구를 못 사귀어 사무치는 외로움에 애슐리 O의 노래로 버티고 있던 레이철은 결국 애슐리 투를 사게 된다.

애슐리 투가 온 후로 레이철은 유일한 친구가 생긴다. 그녀는 애슐리 투를 통해 동경하는 애슐리 O의 춤을 배우고, 슬럼프가 올 때마다 격려를 받기도 한다. 이렇게 점점 레이철은 애슐리 투에게 집착하게 되는데...

“애슐리 투가 실망할 거야”

시간은 흘러 레이철은 애슐리 투의 응원에 힘입어 장기 자랑에 참가하지만 고대하던 당일, 실수를 하게 된다. 가족들의 위로에도 “애슐리 투가 실망할 거야”라며 집착하는 레이철의 모습에 언니 잭은 불안감을 느낀다.

한편, 애슐리 O는 자신을 속이는 일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애슐리의 매니저인 캐서린 고모는 그녀의 감정을 무시했

고, 급기야 애슐리의 뇌 전부를 복사한 후 일부만을 작동하게 하는 애슐리 투까지 만든다. 그리고 끝내 저항하는 애슐리의 의식을 잠재우는데... 이후 캐서린은 ‘애슐리 이터널’이라는 홀로그램을 만들어 더 이상 진짜 애슐리가 필요 없는, 영원히 노래하고 춤추는 애슐리를 완성한다. 과연 애슐리는 어떻게 될까? 또한 레이철과 애슐리 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난 절대로 뺏기지 않아”

오늘날 인터넷과 SNS는 타인의 사생활을 매우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과학계 그 안에 집착하는 이들이 생겨났는데, 결국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자 극적인 콘텐츠를 자아내기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블랙 미러 시즌 5 - 레이철, 잭, 애슐리 투>는 결국 한 사람의 장점 혹은 꾸며진 모습만을 모은 인공지능이 점차 그들의 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사회적 혼란을 경고한다.

‘디지털의 육체 피탈’과 ‘개인의 특별함의 망각’은 <이어즈&이어즈>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난 절대로 뺏기지 않아”라는 애슐리의 자작곡 속 가사를 통해 휴지통에 들어간 대용의 디지털 인간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며, 그 안의 존재에게 집착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블랙 미러>는 SF만으로 미래의 혼란을 경고한다. 특히 사람을 차단하고 뇌를 복사해 자신만의 노예를 만드는 등 디지털의 발전에 따라 실제로 일어날 법한 혼란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해 여운을 남기고 디지털에 익숙해진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단편 시리즈, <블랙 미러 시즌 5 - 레이철, 잭, 애슐리 투>편을 미디어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디지털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이면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하지만 추천과 동시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자극적인 장면과 욕설이 나오기 때문에 시청에 주의할 요한다.

“편리하기만 한 미래가 뭣이 좋단디?”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여러 측면을 심층히 고찰한 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작품들을 통해 한 측면의 이면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각을 넓혀 미래를 예측하고 고찰해보자.

글 - 이서연 수습기자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왓차, 넷플릭스

[참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슬기로운 명절생활

제대로 알고 즐기기

명절(名節)이란 해마다 지켜 즐기는 날로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민속적 요소가 내포된 축일이다. 옛날에는 계절에 따라 가일 또는 가절이라 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 명절이 된 것이다. 우리는 명절을 통해 각국이 지닌 정서와 문화,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진 그들의 역사까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명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소개하며 곧 다가올 추석을 의미 있게 맞이하고자 한다.

#한 해의 시작, 정월대보름



매년 음력 1월 15일은 우리나라 3대 명절 중 하나인 정월대보름이다. 정월대보름이란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으로,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로써 그 해를 설계하고 일년의 운세를 점쳐 보는 달이다. 대보름의 달빛은 ▲어둠 ▲질병 ▲재액을 밀어내는 밝음의 상징으로 마을 수호신에게 질병이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농사가 잘 되고 고기가 잘 잡히도록 비는 '동제'를 지냈다.

이처럼 보름달을 맑고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농경 사회에서 달을 생명의 윤회로 보기 때문에 신라의 가위 기록 이래로 보름달 비중이 커진 것으로 짐작된다.

연중에 치르는 세시 풍속 가운데 절반이 정월에 집중된 까닭은 설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관념과 정월대보름을 새해의 시작으로 보는 관념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해 농사의 시발점이라는 믿음에서 왔으며, 정월대보름의 속신과 의례는 주로 농사와 관계있는 것들로 집약돼 있다. ▲달집 ▲노간주나무태우기 ▲나무그림자점 등 풍습을 점쳐 보는 속신에서부터 ▲모심기 놀이 ▲벚가릿대세우기 ▲보리타작 ▲쥐불놀이 등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 풍속이 대부분이다.

#귀신아 물러가라! 단오

우리나라의 열두 달 중 가장 행사가 많은 달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5월을 택할 것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집중된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불린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은 가족 단위로 놀러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세시 풍속은 바로 음력 5월 5일인 수릿날, 즉 단오다.



수릿날의 뜻을 두고는 여러 가지 말이 전해진다. 밥을 수뢰(물여울)에 던져 제사 지내는 풍속이 있어 '수릿날'이라고 부르게 됐거나, 이날 산에서 자라는 수리취라는 나물을 뜯어 떡을 하는데 떡의 둥그런 모양이 마치 수레바퀴와 같아 수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한다. 또 수리는 신(神)과 높다(高)는 뜻이 있어 '높은 신이 오시는 날'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단오는 초하의 계절에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다. 삼국지와 후한서에 따르면 '삼한 사람들은 5월이 되면 씨를 다 뿌리고 난 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술과 함께 즐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는데,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 줄을 지어 땅을 밟은 채 몸을 구부렸다가 치켰다 하면서 손과 발로 장단을 맞춘다'고 기록돼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 단오라는 명칭과 이념은 중국에서 전해졌다.

단오가 되면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나쁜 액을 없앤다는 뜻에서 치장을 하는데, 이를 단오장이라고 한다. 이들은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붉은 새 옷을 입었으며, 머리에는 창포뿌리를 잘게 잘라 만든 비녀를 꽂았다. 붉은색이 양기를 상징해 악귀를 쫓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수확의 계절, 추석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 가을과 8월의 한 가운데 달이라는 뜻을 지닌 연중 으뜸 명절이다. 추석(秋夕)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의미로 달이 유난히 밝고 좋은 명절이라는 뜻이다. 추석 무렵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다. 5월에는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땅을 흘려 등 마를 날이 없지만, 8월에는 한해 농사가 다 마무리되는 시기라 봄철 농사일보다 힘을 덜 들이고 신선처럼 지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때는 오곡이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새우므로 농촌 사회였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 되는 것이 당연했다.

추석에는 ▲강강술래 ▲줄다리기 ▲가마싸움 ▲닭싸움 같은 놀이를 하는데, 특히 보름명절에는 강강술래와 같은 원무가 중심을 이룬다. 단순한 놀이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농을 기원하고 예측하는 신앙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대보름의 강강술래는 생산의 주체인 여성들이 풍요의 달 아래에서 논다는 뜻으로 풍요의 극치를 상징한다.

추석은 그동안 농사를 잘 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농공감사일이며 농사의 결실을 보는 절일이다. 아울러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듬해의 풍농을 기리는 시기로서 깊은 의미가 있다.

#글로벌 지구, 다양한 명절

1. 중국의 '중추절'

중국에서는 추석을 가을의 중간 시기라고 하여 '중추절'이라 부르고, 송편 대신 월병을 먹는다. 둥근 달의 모양을 닮은 월병은 ▲밀가루 ▲설탕 ▲계란 ▲팥 ▲육류 ▲말린 과일 등으로 만들어진다. 이때 중국인들은 월병이 둥글수록 복이 온다고 믿어 보름달과 같은 둥근 모양의 월병을 선호한다.

2. 베트남의 '쫄투'

베트남 역시 음력 8월 15일을 추석으로 한다. 베트남 말로 추석을 '쫄투'라고 하며, 이날은 가족들이 모여 전통음식을 먹고 성묘를 다녀온다.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월병과 비슷한 음식인 '반쫄투'라는 전통음식을 먹고 중국처럼 달에게 제사를 지낸다.

3. 일본의 '오봉'

일본의 추석은 양력 8월 15일이며 '오봉'이라 부른다. 오봉은 수확에 대한 축제라기보다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기리는 날로 제사와 성묘에 더 신경 쓴다. 집안에 향을 피워 현관이나 마당에 두고, 다음 날에 불을 피워 떠나는 조상의 영혼을 배웅한다. 이는 저승에 있는 조상들이 집을 찾아올 때 길을 잃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색 있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은 모두 추석날 제사를 지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은 조상이 아닌 '달'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예로부터 유교 사상을 중시한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 또 베트남에서 추석은 '어린이날'로 불리기도 하는데, 농사일로 바쁜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돌보지 못한 미안함을 선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한편, 오봉은 일본의 전통 명절임에도 우리나라처럼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추석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어 고유 명절을 지키기 더욱 쉽다.

우리 민족은 설날, 단오, 추석과 같은 대명절 외에도 철 따라 다양한 명절을 쇠었다. 조상들은 아무렇게나 명절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알기 쉽게 설정했다. 달에 숫자가 중복되는 날, 즉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과 같은 날이거나 즐겁게 휴식할 수 있는 달의 보름날들인 ▲1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등을 명절로 정했다.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한 조상들의 전통을 온전하게 계승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명절은 각 나라의 풍습뿐만 아니라 민족의식까지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사회 이후 공업이 생업의 중심이 되면서 이전 농촌 사회일 때보다 세시 명절이 많이 약화됐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명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즐긴다면 전통이 퇴색되지 않고 시대에 맞게 계승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고은성 수습기자 ges0188@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상하이방, 히트인덕션, 뉴시스, 문화재청, 끼뉴스, 아시아엔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뜨겁게 불타올랐던 8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8월의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품으며 활동했던 인물이 있다. 그는 우리나라를 빼앗으려는 시도에 맞서 저항정신과 투쟁 의지로 우리의 것을 지켰다. 이번 385호에서는 국권 약탈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역사가, 이회영 선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픈 새끼손가락, 경술국치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은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국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선은 배일친러정책을 표방했는데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를 도발했고, 이는 러일전쟁의 서막이 됐다. 그 후 1904년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조선의 토지 및 인력 등 많은 자원을 징발했다. 그렇게 조선은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발걸음을 디딘 위인이 있다. 이 인물이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이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당 이회영 선생은 선조들이 정승, 판서를 지낸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됐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안창호 선생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는 일에 몰심양면으로 도왔다. 만주에 이상설 선생을 책임자로 둔 독립운동 근거지 서전서숙을 설립했고, 이상설 선생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후에는 교육 진흥 운동을 널리 추진하기 위해 동지들을 각 학교에 파견해 교육 사업에 힘썼다. 그뿐만 아니라 만주로 망명해 현재 약 600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 가문의 전 재산, 6천 석을 구국운동을 위해 독립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한인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해 청년들이 구국 이

념과 항일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신흥강습소를 설립하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애국 사상을 고취했다. 신흥강습소에서 학습한 청년들은 훗날 청산리전투와 봉오동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며 다시 한번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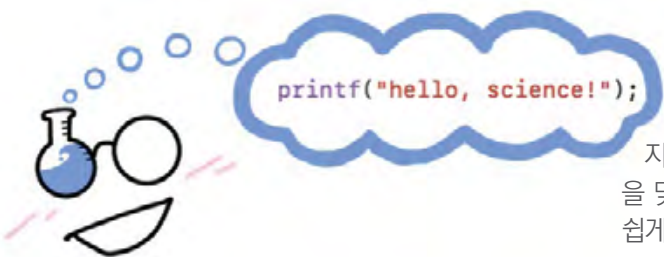
이회영 선생의 나라를 위한 투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도우며 고종의 국외 망명을 계획했다. 하지만 1919년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상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당시 임시정부에서 직책을 두고 분란이 일어나자 이회영 선생은 거처를 옮기며 독립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다 1932년 상해사변이 발생했을 때 이회영 선생은 중국 국민당과 의논 후 무기 지원 약속을 받았으나 11월 일본군 사령관 암살을 목적으로 이동하던 도중 일경에게 체포됐고 고문 끝에 순국했다.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백성을 깨우쳐야 한다”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말처럼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올바른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배움은 변화를 가져온다. 즉 변화를 원한다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현재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사건과 한복과 김치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발언은 우리가 배움을 거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대상이다. 과거 조상들이 그랬듯 명확한 지식과 근거를 토대로 한다면 우리나라를 향한 비뚤어진 주장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글 - 노하은 기자 dmlsu7226@sungkyul.ac.kr

사진 - 울산광역시 교육청, 네이버 사진

[참조] 우당기념사업회, 한겨레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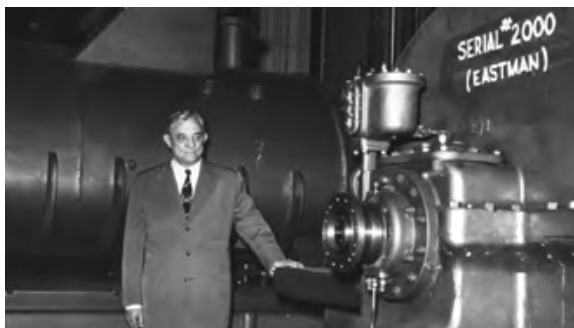


사실 너를 위한 건 아니었어

지난여름, 띄약벌 아래 타는듯한 정수리, 빨갛게 익어버리는 살이 그렇게 괴로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무사히 가을을 맞을 수 있었던 건 '이 기계'의 공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는 물론, 집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기계. 이번 호에서는 '에어컨'의 역사를 출력해보자!

폭염특보가 울리는 날이면 어느 채널의 뉴스에서든 전력 거래소의 전력예비율 한 자릿수의 예고가 흘러나온다. 찜통 같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냉방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처럼 전력거래소의 경고를 꽤 들었던 길로 기억한다. 현재 냉방 기기의 대표주자 에어컨은 여름철 전력 사용량의 주범이지만 1990년대만 해도 은행에서야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흔치 않았다. 우리나라의 에어컨 역사는 1975년 금성사(현재 LG전자)가 텔레비전 크기의 창문형 에어컨을 생산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 벽걸이 에어컨 ▲1990년대 스탠드형 대형 에어컨 ▲2010년대 인공지능 에어컨이 출시되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어컨 그 자체의 시작은 1900년대 초반이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개발했을까? 미국의 공학자 '윌리스 캐리어'에 의해 처음 등장한 에어컨은 사실 사람을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었다. 버펄로 포지 컴퍼니에 근무하던 윌리스는 여름의 고온과 습기로 인한 용지 변질 또는 잉크 번짐 현상으로 인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인쇄사에 의해 공기조화 시스템을 설계하게 됐다. 당시 윌리스가 제안한 공기조화 시스템은 습도 조절 장치의 추가로 ▲온도 조절 ▲공기 순환 및 환기 ▲공기 정화가 가능했고 이는 곧 세계 최초의 에어컨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윌리스는 버펄로 포지로부터 독립하고 '캐리어'라는 회사를 창립



해 1915년부터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생산했다. 그 후 윌리스 캐리어의 에어컨은 기계나 인쇄물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계로 탈바꿈해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가전이 됐다.

기본적으로 기화열을 이용하는 에어컨의 원리는 분무기로 몸에 물을 뿌리면 몸에 묻은 물이 마르면서 기화열을 빼앗아 서늘해지는 방식이다. 동작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체 상태의 냉매를 강한 압력을 이용해 액체로 만든 뒤, 냉매가 기화됨과 동시에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차갑게 식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냉매가 기화할 때 열을 흡수하듯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땐 열을 방출하게 된다. 실외기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후덥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것

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을 위해서는 냉매가 필요하다. 에어컨 개발 초반에는 약간의 압축으로도 쉽게 액체로 변하고 물에도 잘 녹는 암모니아를 냉매제로 채택했으나, 유독성 물질의 위험성으로 보다 안전한 프레온 가스가 사용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오존층 파괴 문제로 엄격하고 까다롭게 관리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냉매제를 고려해봐도 기존 냉매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이상적인 냉매는 존재하지 않아 과학계는 냉매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는 냉동 및 공조 설계 시 ▲압축기의 종류 ▲증발 온도와 압력 ▲응축 온도와 압력 등의 열역학적 조건에 따라 장치의 성능을 고려해 ▲탄화수소 냉매 ▲암모니아 ▲물 ▲공기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냉매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개발의 개발을 거쳐 기능면에선 완성된 에어컨, 불타올랐던 여름과 불타오르고 있는 지구를 위해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냉매제 개발만이 더 시원한 여름을 위한 현재의 관건이 되겠다.

글 - 정우민 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캐리어 홈페이지

[참조] KBS WORLD, IT동아

수습기자 칼럼



고은성 수습기자

흔히 한국인은 밥심이라고들 한다. 예로부터 벼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던 우리는 이른바 탄수화물의 민족답게 안부 인사를 밥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예컨대 ‘밥 한 끼 하자’거나 ‘밥 한 번 살게’ 같은 말들은 진정 밥을 먹자는 의미가 아닌 의례적인 안부 인사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된 이후 일상생활 속 만남에서 새로 듣는 인사말 중 하나는 ‘백신은 맞으셨나요’이다. 이처럼 백신은 또 하나의 안부 인사가 될 만큼 주목받고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코로나19 백신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불안 반, 기대

반으로 예방 접종을 시작했다. 마스크가 없던 삶은 어떠했던가. 여름엔 가족들과 바다에 놀러 가고, 겨울엔 친구들과 스키장에 놀러 가고, 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놀던 수영장엔 얼마나 행복했던가. 추억으로 남겨진 여행은 모두 아득하기만 하다. 그러나 백신 상용화로 인해 과거의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백신 접종 이후 ‘노 마스크’가 시행된 영국만 해도 그렇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신 상용화에 의구심을 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백신 등장으로 전반적인 사회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예방 접종에 관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예시는 백신 티켓팅이다. 50대 부모님과 70대 할머니, 20대 자매를 둔 필

자의 경우 거의 모든 온라인 백신 접종 예약을 직접 해야 했다. 필자는 7일부터 시작된 60·70대 백신 예약부터 40·50대 백신 예약까지 전부 참여했는데, 이는 흡사 아이돌 티켓팅 현장을 방불케 했다. 정각이 지나 버튼을 누르면 대기자가 순식간에 몇백, 몇천 명으로 늘어나 잠시라도 컴퓨터 앞을 떠날 수 없었다. 50대 백신 예약 도중에는 사이트가 마비되었다가 다시 열리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백신 예약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백신 매크로’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매크로를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 매크로를 산 사람들은 또다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매크로를 돌려 백신을 잡아 주는 형태다. 매크로 문제는 특히 잔여 백신과 관련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 시기가 늦은 20·30대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접종을 받고자 알람을 등록해 둔 채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한다. 그러나 자동 예약이 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때문에 알람을 받고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예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백신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백신 관광’이라고 하여 여행사 곳곳에서 내놓은 패키지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백신이 남아도는 미국은 현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 중이다. 출장이나 여행길에 별도 예약 없이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고 관광도 할 수 있으니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우리는 국가 재난 상황에 처해 있다. 여전히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 접종뿐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이 위와 같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신속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글 - 고은성 수습기자 ges0188@sungkyul.ac.kr

[참조] 한국경제

체험 에세이



오승민 기자

2019년 12월 반오십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내게 휴학이라는 선물을 주기로 했다. 어린 나이지만 대학생치고는 연장자인, 취업에 신경 써야 하지만 여전히 노는 게 제일 좋은 애매한 나이 스물다섯. 이 속에서 다른 고학년들처럼 ‘진로 고민 혹은 취업 준비를 위해’가 아닌,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가을에 산티아고 순례길에 다녀오기 위해’라는 꽤 나다

운 이유로 휴학을 결심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내 기준 실패한 휴학들이 은근히 많았다. 적어도 나는 아무런 대책 없이 1년 내지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2020년을 위해 일주일, 한 달, 일 년 단위로 열심히 일정을 짰다. 하지만 나의 노력과 기대를 비웃는 듯, 휴학 신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이제 막 등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걱정되지 않았다. 31번 확진자를 기점으로 코로나가 대구를 강타했을 때에도 전국을 뒤덮을 거라고는, 내 계획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렇게 휴학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코로나로 인해 순례길에 오를 수 없게 됐고, 여행경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향한 발걸음은 나날이 무거워졌다. 또 여행길에서 마주칠 낯선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등록했

던 영어 회화 수업은 점점 지루해졌다. 그러던 중 우연일까, 휴학한 이후 보기 시작한 애니메이션 중 “인생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야, 새로운 경치를 보려면 스스로 길을 내는 수밖에 없어”라는 대사가 마음에 와닿았다. 그제서야 휴학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나간 것들에 대한 미련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주도 한 달 살기’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덕분에 출근길이 한결 가벼워졌고, 제주도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바다에서 놀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했다. 그렇게 지낼 곳도 알아보고, 할 것들을 계획하다 보니 다시금 생기가 돋았다. 마침내 10월 퇴사 후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며 매일의 바다를 눈에 담았고, 소중한 인연들을 만 들어나가는 등 꽤 많은 추억과 함께 돌아왔다. 새로운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스물다섯, 앞으로 벌어질 일도 모른 채 꽤

나 자신만만했던 나는 세상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그 변수들을 다 예측하며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몸소 배웠다. 이에 요구되는 것들 중 하나는 유연한 목표 설정일 것이다. 만약 목표가 사라진 후 낙심하지 않고 바로 다른 목표를 찾는 법을 알았다면 휴학은 더 알찼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휴학 기간 동안 맛본 실패를 통해 꽤 값진 경험을 얻었고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갈 것을 자부한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훌쩍 넘었고, 26.4%의 학생이 휴학을 계획한다는 설문조사를 봤다. 어떠한 이유로 휴학을 하든지 적어도 명확한 목표 설정과 동시에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경치를 보기 위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 오승민 기자 sm961215@sungkyul.ac.kr

경험값

카멜레온

“오늘날은 정체성과 소속감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스스로 다르다고 느끼며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강인하다고 느낄 필요가 있는 시대다”

- 발렌티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엘파올로 피촐리 (Pierpaolo Piccioli). Vogue Korea 7월호 중

이 시대는 타인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소속을 묻는다. 그러나 대부분 본인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사회생활을 하며 어딘가에 소속될 수는 있지만, 그 사회가 자신에게 소속감을 준다고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정체성과 소속감에 집착할까?

가늠하건대 정체성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 다양한 인종, 사랑, 우정, 가족이 형성된 만큼 변화된 시대에 맞춰 우리의 사고도 움직여야 한다. 과거와 현재 문화, 그리고 미래 문화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바로 남겨진 과제다.

정체성이란, 성별의 성질을 넘어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 끝없이 스스로에 대해 갈급해 한다. 한 사람에 여러 캐릭터가 나올 수 있으며, 어느 것이 본 모습과 가까운 지는 때에 따라 다르다. 이는 부케 문화가 단순 열풍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또는 유튜브 채널 ‘괴식 대학’의 최준과 메드몬스터 같이 타인에게서 여러 모습이 보이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한다. 그 모습이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소속’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소속은 보통 사회집단을 뜻하나, 안정감을 느끼는 자아 또는 공간이라고도 정의한다. 집단에 맞춰 보통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튀어나온 자신의 부캐를 소비한 후, 본모습으로 돌아가도 어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소속이 된다. 이에 어느 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고 정체인지 헷갈릴 때도 많지만, 본인에게 유익하다면 굳이 포장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모습을 접하게 될수록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될 테니.

소속감을 취하느라 복제인간으로 남을 필요는 없다. 동시에 스스로 다르다고 느끼며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강인하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카멜레온

주간사설



임태균 교수
동아시아물류학부

메타버스와 대학교육 패러다임 변화

최근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메타버스'란 가상조절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을 융합한다는 개념이다. 이 '메타버스'는 스마트폰 등의 화면상에서 웹사이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VR) 단말을 통해 가상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이미지이다. 메타버스는 미국의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1992)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소설 속 주인공이 가상과 현실세계를 넘나들며 악의 무리와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소설 속 이야기가 실제로 하나둘 현실화되어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화된 가상공간 속 비대면 소통의 필요성에 의해 메타버스는 더욱 확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 페이스

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 7월 더 버지(The Verge)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5년 안에 페이스북을 '메타버스'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에 2조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메타버스를 신사업으로 새롭게 추가하기에 이르러진 것도 메타버스가 지니는 경제적, 사회적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디지털 교육이 중시되고 있는 요즘, 메타버스는 기존의 대학의 형태와 운영에 거대한 변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메타버스

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대학교육에 어떻게 적용해나가는가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국내 일부 대학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3D 캠퍼스, 버추얼 입학식과 축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아바타로 활동하며 타인들과 놀이와 소통을 즐기는 메타버스 기술은 이제 단순히 놀이문화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는 바야흐로 메타버스 캠퍼스를 둘러싼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겠다.

교수칼럼



서혜영 교수
예술대학장

〈애국가〉의 딜레마

안창호 선생이 시대 상황에 맞도록 일부를 고쳤다는 설이 유력하다. 훗날 친일로 전향한 윤치호가 애국가의 작사자라는 가설은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공식적으로 애국가 작사자는 미상으로 되어있다.

더욱 불편한 논란은 〈애국가〉의 작곡자 안익태에 관한 것이다. 우리에게 안익태는 '세계적인 지휘자요, 암울하던 일제강점기에 해외에서 애국가가 포함된 〈한국환상곡〉을 지휘하며 국위를 선양했던 위인'이었다. 그런데 2006년, 일장기와 나치 기장이 필러이는 연주회에서 그가 '만주국(일본의 괴뢰국가) 건국 10주년을 축하'하며 자신이 작곡한 〈만주환상곡〉을 열성적으로 지휘하는 7분가량의 동영상 발견되어 공개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짧은 동영상에서 들리는 선율이 〈한국환상곡〉에서 나오는 선율이라는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안익태는 1906년 평양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음악원에서 첼로를 전공했고, 미국 신시내티 음대, 템플 음대를 거치면서 작곡, 지휘로 전공을 바꾸었다. 1930년경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를 방문하고 동포들이 〈월드 랭 사인〉곡조에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안타까워 5년 만에 걸쳐 〈애국가〉를 작곡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훗날 이 〈애국가〉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로 이어지게 될 터였다. 안익태는 이 〈애국가〉를 바탕으로 교향시 〈한국환상곡〉을 작곡하고 1938년 아일랜드에서 발표, 지휘하기도 했다. 이때까지 분명 그는 마나면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그리는 애국청년이었다.

1938년 그는 서양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에

진출하고자 마음먹고, 나치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으로 향한다. 당시 유럽 음악계는 임박한 2차대전과 나치의 반유대인 정책의 혼란 속에서 거의 진공상태였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그는 동맹국간 문화교류를 내세운 관변단체 '일-독협회'가 주관하는 여러 연주회에 참여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성취욕이 강했던 그로서는 '에키타이 안'이라는 이름의 일본 인이기에 가능했던 음악적 성공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의 친일, 나아가 친나치 활동은 이때 시작되었을 것이다.

일-독협회의 강력한 후원과 그 자신의 실력에 힘입어 '에키타이 안'은 1940년경부터 일본의 동맹이었던 독일, 이태리, 동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성기를 맞는다. 위에 언급되었듯 〈한국환상곡〉의 주요 선율을 그대로 재활용한 〈만주환상곡〉을 비롯해 일본 아악에 기초하여 작곡한 〈에텐라쿠(月天樂)〉와 〈교쿠토(極東)〉 등이 그의 주요 레퍼토리였다. 〈한국환상곡〉을 연주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1943년 전세가 기울어지자 그는 스페인으로 피신하고 그곳에서 결혼하여 귀화한다.

1938년 이후 안익태의 친일 행적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선불리 애국가를 폐기하는 일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당시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치 당원이었던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나치 부역자였던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전후 재판정에 섰고, 몇 년간의 자격 정지 기간을 거쳐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안익태는 어떠했을까? 1955년 그는 다시 애국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한국을 방문한다. 이승만 대통령 80회 생일축하 음악회(이런 행사가 있었다니!!)에 초청되어 〈한국환상곡〉을 연주하고 한국 최초의 문화포상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이 유럽에서 당당히 연주했다는 〈한국환상곡〉 악보를 헌정하는데 "원본 악보는 전쟁 중에 잃어버렸기에" 전후에 기억을 되살려 새로 필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상한 것은 언제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슈베르트, 베토벤 등의 옛날 악보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하필 그 귀한 자신의 대표작 〈한국환상곡〉 악보를 분실했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에텐라쿠〉와 〈교쿠토〉 악보 역시 행방이 묘연하다.) 이 새로운 〈한국환상곡〉 악보 속표지에 그가 빼곡히 적어놓은 유럽에서의 연주 날짜들은 〈만주환상곡〉의 연주 날짜와 거의 일치함이 2007년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그가 유럽에서 연주했던 것은 〈한국환상곡〉이 아니라 〈만주환상곡〉이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고심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안익태의 생전에도 그의 친일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지만 그는 여기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였다. 오히려 〈에텐라쿠〉를 "세종 때의 아악에서 영감을 받은" 〈강성천악〉으로 개작해서 발표하는 등 성공과 맞바꾼 자신의 일탈을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그는 1965년 세상을 떠나 국립묘지에 말없이 누워 있다. 생전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 솔직히 인정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애국가를 들으면서 느끼는 묵직한 불편함은 조금 덜해지지 않았을까?

독자 한 스푼

새 학기를 맞아 새롭게 개편된 독자참여 '독자 한 스푼'은 학우들과 사진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학보사가 제시한 385호 주제 "내 반려동물 좀 볼래?"에 선정된 사진을 공개한다. 성결인들의 반려동물 좀 볼래?



호두 | 김도연(20) 학우



몽돌이, 몽실이 | 국동요(17) 학우



동동이 | 이병주(20) 학우

대학생활 새내기!

20학번, 21학번 학생들을 위한 추천

2021-2학기 학습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1. 성결 튜터링

전공과목 A00이상 취득, 공모전 입상, 자격증 취득한 학생(튜터)과 그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동일 자격증 취득 목적의 학생들(튜티)이 함께 팀을 이루어 다양한 전략으로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2. 성결 스터디

학생들이 공통 학습주제(교과목, 자격증)로 팀을 형성하여 협동학습을 진행하고, 학기별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내용을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비교과 프로그램

대학생활 새나기를 위한 추천 키워드!

- ☑ 코로나 시대의 지루한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선·후배, 동기와 함께 스터디**하고 싶은 학생!!
- ☑ 공모전, 자격증 등 이미 취득한 **선배의 학습 꿀팁**과 함께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원하는 학생!!
- ☑ 경험해보지 못한 **대학 생활과 대학 공부법**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대학생활 새내기!!**
- ☑ 학습 성취감 및 S-point, 활동비 등 **학습활동**에 대한 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 학생!!
- ☑ **20학번, 21학번**이 포함된 튜터링, 스터디 그룹은 **간식 지원!!**

* 학습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모든 학년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성결튜터링 성결스터디



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팀 031)467-8139

*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및 매 학기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